

제724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0일)

## 소장품 수집

김세원, 209호 기증 I 실 18:00~18:30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총 수량은 약 43만 7천여점으로 전시 중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장품은 환경이 제어되는 유물관리부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소장품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장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합니다. 박물관이 소장품을 수집하는 방식은 발굴 조사, 구입, 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관이 직접 발굴하기 보다는 국가귀속 절차를 통해 우리 관으로 입수된 발굴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국가귀속문화재를 제외하고 우리 관이 소장품을 수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소장품 구입입니다. 연간 책정된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국내경매, 국외경매, 일반구입 절차를 진행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급 중요 문화재와 세계문화부 상설전시에 필요한 해외 문화재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 수증을 통해 소장품을 수집하기도 하는데 잘 알려진 최근 사례가故이건희 회장 수집 문화재 기증입니다. 기증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이 소장품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관은 기증하신 분들의 숭고한 큰 뜻을 기리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기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자 예우를 위하여 기증자 명패 설치,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경우, 무료주차, 전시 무료관람 및 관내 편의 시설 이용 관련 소소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故이건희 회장 기증 <건희>품 외에도 동원 이흥근 기증 <동원>품, 수정 박병래 기증 <수정>품 등 언제나 관람객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기증품들이 우리 관 기증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전시실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증관 전경>



<기증자 인터뷰>



제72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0일)

## 신라의 동물모양토기

윤상덕, 108호 신라실 18:00~18:30

신라인들은 집이나 배, 수레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본 뜬 토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 동물을 모델로 한 토기는 신라 토기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리를 비롯한 새모양 토기, 상서로운 동물을 표현한 주자 등이 있고 말탄사람모양 주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새모양 토기는 주로 낙동강 동쪽 지역의 3~4세기대 무덤에서 출토됩니다. 장송 의례용으로 특별히 만든 토기로 추정됩니다. 오리, 닭, 부엉이를 표현하였는데 오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몸통은 속이 비어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몸통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어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오리의 목을 제거하고 무덤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장례 중에 산 오리의 목을 잘라 피를 뿌리던 예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삼국지위서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에는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여 죽은 자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새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새모양 토기 외에 신라인들은 유난히 ‘말’을 소재로 한 물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탄 모습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단순히 말만 표현하거나, 말 등에 뿔잔을 놓은 형태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말이 운송, 전쟁, 사냥의 수단으로 신라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덤 속에 끼묻거리로 말모양 토기를 넣는 것은 마치 오리를 넣는 것처럼 죽은 자를 하늘로 편안히 인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는 주인과 시종으로 여겨지는 말탄사람모양 주자가 출토되었는데, 시종이 손에 방울을 들고 있어 앞장서서 하늘로 주인을 안내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하인상이 주인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탄사람모양 주자는 경주의 금령총, 덕천리, 전천관사지 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자(注子)’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식품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액체를 따르는 숨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X선을 찍어보니 몸통 가운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위에는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깔때기가 달려 있고, 말 앞쪽에는 대롱이 있어 주자(注子)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령총에서 출토된 말탄사람모양 주자에는 몸통에 약 240cc정도를 담을 수 있었는데, 역시 장례에 사용되었을 것

입니다. 덕천리 1호 무덤의 것도 말 엉덩이 위와 앞쪽에 깔때기와 대롱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자가 아니라 등잔으로 쓰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에 없는 짐승을 모델로 한 것도 있습니다. 미추왕릉 C지구 3호 무덤에서 출토된 서수모양 주자(瑞獸形注子)로 현무를 닮았습니다. 속이 비어 있고, 대롱과 깔때기가 있어 말탄사람모양 주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요한 의례를 할 때에는 동물의 피를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동물을 주자를 만든 이유는 이 주자로 술을 따르면 동물의 몸속에서 액체가 나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림 3 오리모양토기, 울산 중산리



그림 4 서수형주자, 미추왕릉 C지구 3호



그림 5 말탄사람모양 주자 출토모습



그림 6 말탄사람모양 주자 X선사진, 금령총





제72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0일)

##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다

김혜경, 209호 기증 I 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함께 나누고자 상설전시관에 기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하여 지난 12월에 문을 연 ‘기증 I 실’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증관 개편 사업의 첫 결과**입니다. 이 전시실은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하반기에 완성될 기증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기증관 개편의 취지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편안하게 찾아와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새롭게 문을 연 ‘기증 I 실’은 기증품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곳, 기증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기증자의 나눔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기증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기억을 더해가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나눔의 서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증품을 감상하는 라운지와 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아카이브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200여 점에 달하는 기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기증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마련한 아카이브에서는 기증자와 기증품 정보, 기증자가 문화재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기증을 결심하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 영상, 기증 관련 신문 기사 등을 편안하게 앉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공간은 ‘기증, 기억을 나누다’와 ‘나눔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억’에 초점을 맞춰 풀어낸 ‘**기증, 기억을 나누다**’에서는 기증자들이 문화재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 기억, 문화재 전문가와 관람객들의 기증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나눔의 길**’에서는 역대 수많은 기증자의 이름과 어록을 실감형 맵핑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서는 1994년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를 집중 조명하여 투구에 담긴 기억과 나눔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특히, 투구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내년에 완성될 기증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 사비백제의 건축장식

정현, 106호 백제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에 전시된 주요 문화재를 살펴보며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국사기』는 백제 문화를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백제의 문화재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소박한 그릇과 건물을 장식한 기와였습니다.

지붕의 용마루 양 끝에 올린 치미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건물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왕흥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한 쌍의 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흥사는 백제의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지은 왕실사찰로, 이 치미는 금당과 탑의 동편에 위치한 동건물지의 지붕을 장식했습니다. 백제의 기와장들은 크고 무거운 치미를 빚고 굽기 위해 상부와 하부로 분리하여 제작했습니다.

백제의 연꽃무늬 수막새는 화려한 장식을 부가하는 대신 연꽃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고구려·신라 연꽃무늬 수막새에 비해 훨씬 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백제 웅진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한 연꽃무늬 수막새는 사비시기에 이르러 바람개비무늬 또는 민무늬로 다양해집니다.

부여 외리 절터에서 발견한 무늬벽돌은 백제의 수준 높은 기와 제작 기술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외리 절터 바닥에서 총 8종류의 무늬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늬벽돌에는 백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상상 속 동물인 용과 봉황, 그리고 귀신의 얼굴 등이 입체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 산수무늬벽돌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해외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흥사 절터 치미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산수무늬 벽돌